

사랑 II LIEBE II



국립극단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는
제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사랑 II LIEBE II

작·연출 박본 Park Bonn

일정 2021년 6월 23일(수) ~ 7월 18일(일)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본 공연은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21년 6월 23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관객 여러분, 한국인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부디 이 작품이 여러분에게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꿈꿔왔습니다. 제 근원이 되는 나라에서 제가 해온 일을 하는 것일요. 우리 가족이 여기에 앉아 제 일을 이해하는 (혹은 하지 못하는) 것일요. 최소한 이를 통해 그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지는 것일요.

저는 항상 언어의 장벽과 씨름해왔습니다. 또 저는 항상 제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생각과 감정, 이 두 가지 모두를 이 나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독일에 사는 이상한 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가족들이 저를 ‘애정하는, 독일에 사는 이상한 사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여러 차례 좌절하기도,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요. 훌륭한 번역가 이단비 님 덕분에 마침내 여러분에게 말을 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한국인 얼굴에, 한국인 부모님이 있고, 또 한국인의 핏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리퍼를 신으면 한국 사람처럼 걷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아니 그냥 음식 자체를 정말 좋아하고(독일인들은 음식을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또 조금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 다수가 가진 고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독일에 있으면 고향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고향이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두 세계를 모두 알고, 정반대의 두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정체성이야말로 제 고향이라고 느낍니다. 외국에 나갔던 한국인들이 점차 한국으로 돌아오고, 두 세계의 접점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기에 이러한 제 정체성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정체성이 하나의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연출가

박본 Park Bonn

연극

<마음의 도둑들> <유고유고슬라비아> <도이칠란트>
<BAMBI> <삼십억 자매> <으르렁대는 은하수>
<플랑쿠후로토. 한스라는 이름의 중국인>
<박본을 애도함> <슬픔과 멜랑콜리>
<젊은 2D 슈퍼마리오의 슬픔> 외

수상

2019 Theater Heute 선정 올해의 신진연출가
2018 프리디리히 루프트상 <삼십억 자매>
2018 ZITTY 작품상 <삼십억 자매>
2017 베를린연극제 회극부문 <으르렁대는 은하수>
2016 독일젊은연극상 노미네이트 <슬픔과 멜랑콜리>
2016 에센 극작가 페스티벌 젊은심사위원회상 <박본을 애도함>
2015 엘세 라스커 학생극작사상 <슬픔과 멜랑콜리>
2011 하이델베르크 연극제 회극부문 <젊은 2D 슈퍼마리오의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세계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완벽주의, 어떠한 결점도 갖지 않고자 하는 갈망, 또 개인의 안녕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믿음은 저를 매료시켰고, 저는 아직도 그 문화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느끼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과 비교하였을 때 서구의 나라들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본다면, 제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떠난 10,000km 거리의 나라에서는 지금이 팬데믹인지 아닌지를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기도 합니다. 한편 이곳 한국에서는 정치적, 개인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규칙을 따릅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믿음, 충분히 열심히 하기로 한다면, 또 그래야한다면, 목숨을 바칠만큼 노력한다면, 결점 하나 없는 완벽주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사랑 II', 사랑의 후속편, 사랑이지만 더 좋은 것, 고통 없는, 결점 없는, 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었지만 실패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사람.
끝난 줄 알았던 삶이 지구의 핵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세 사람은 완벽한 그룹을 위해서
멤버 한 명을 직접 길러내기로 한다.
풀과 꽃이 있고 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Three people have taken their own lives
after failing to become pop idols.
Although they expect their lives to be over,
they continue to exist in the earth core.
Still hoping to become pop idols,
they decide to cultivate a new member so they can form
a perfect group together—amidst the grass,
flowers and flowing water there.



관점 없는 블랙

현무**강현우****Kang Hyun-woo**

연극

<파우스트 엔딩> <햄릿> <동양극장 2020>
 <어떤점경지역에서는> <깨끗하고 연약한> <드림타임>
 <해맞이> <빨> <웰즈로드 12번지>
 <B성년-美성년으로간다> 외

실랑 가득 블루

청룡**박소연****Park So-yeon**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햄릿> <불꽃놀이> <화전가> <두뇌수술>
 <영지> <분노하세요> <페스트>
 <친절한 에이미 선생님의 하루> <청춘예찬> 외

불안 장애 레드

주작**이유진****Lee Yoo-jin**

연극

<X의 비극> <스카펄> <불꽃놀이> <화전가>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가족연극>
 <취버영감의 소집영장>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외

수상

2019 신춘문에 단막극전 우수연기상 <가족연극>

이무기짱**김예림****Kim Ye-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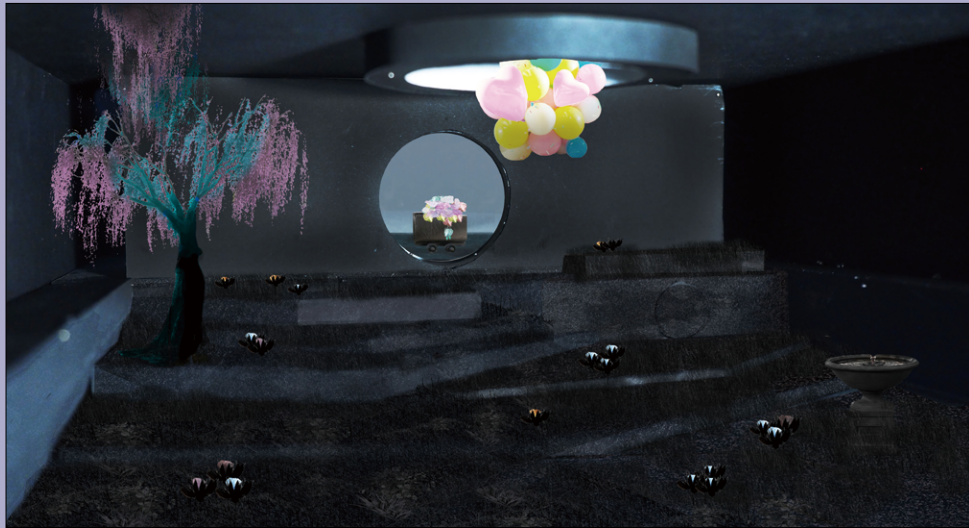
연극

<X의 비극> <햄릿> <젊음의 열병> <동양극장 2020>
 <에쿠우스> <잃어버린 마을> <여도>
 <브라보마이라이프> <바보햄릿> 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디자인 아이디어는 작품의 개발단계 초반부터 구체화되었으며,
박본 작·연출가와 제가 공유한 키워드, 생각, 느낌들로부터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제 리서치 과정은 종종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은데, 이번 여행은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화와 일반적인 개념,
그리고 지구 공동설의 음모론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온갖 레퍼런스와
이를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찬 놀이터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미술감독

누스바우머 율리아
Nussbaumer Julia

연극

<유고요슬라비아>, <도이칠란드>, <오르릉대는 은하수> 외

뮤지션이기 이전에 한 명의 청취자로서, 인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섬세한
한국 음악문화에 몰두해본 것은 정말 특별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케이팝의 눈부신 기술적 완성도부터 이미자의 노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넘어 전통적인 판소리까지, 제가 만난 노래들은 영감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사랑 II>의 음악은 리서치 과정에서 느낀 모든 범주의 감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박본 작·연출가가 만들어 낸 어둡고 마법같은 세계관은 완벽과 광기, 코미디와 재앙,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탐험하면서 반대되는 것들의 충돌을
기꺼이 허용하는 양식적인 풍자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어로 작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어의 부드러운 음악성과 유연함 덕분에
기억에 남을 만한 보람 있는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공연을 통해 관객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터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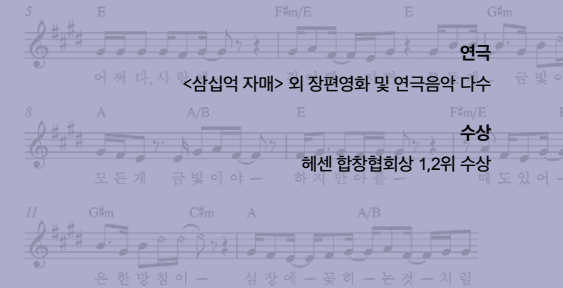


“언제나 사랑II해” 노래
We love2 you forever - V 20210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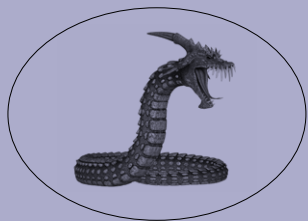
음악감독

사랑 뢰슬러 벤
Roessler Ben



<삼십억 자매> 외 장편영화 및 연극음악 다수 수상
헤센 합창협회상 1,2위 수상

<사랑 II>는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양 설화 및 전설에 대한 리서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구축했다.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개념은 ‘사신’, ‘이무기’, 그리고 ‘서천서역’이다.
<사랑 II>에서는 주요 인물들이 각각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신과 이무기로 등장한다.



이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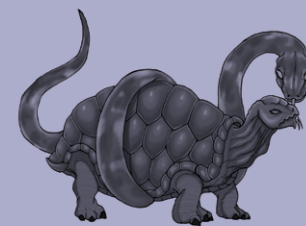
한국 신화에서 이무기는 뱀 또는 구렁이와 용의 중간단계로,
때로는 ‘용이 되기 위해 1000년을 견뎌내야 하는 존재’
또 때로는 ‘용이 되지 못한 존재’로 나타난다.
<사랑 II>의 ‘이무기’는 완벽한 아이돌로 피어나기 위해
10000년의 수련을 거듭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서천서역

한국 신화에서 서천서역국은
황천수黃泉水 건너편에 있는 저승의 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사랑 II>에서 ‘서쪽’은 ‘죽은 자들의 세상’이라 불리는 곳으로 나타나며,
‘백호’가 ‘지구의 핵’으로 오기 전 머물렀던 곳으로 그려진다.

<사랑 II> 속 세계관



현무

북쪽을 관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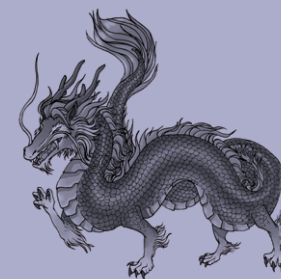
백호

서쪽을 관장하는 흰 호랑이

사신^{四神}

‘사령^{四靈}’ 또는
‘사수^{四獸}’라고도 지칭하며
동쪽의 청룡^{靑龍},
서쪽의 백호^{白虎},
남쪽의朱雀^{朱雀},
북쪽의 현무^{玄武}를
일컫는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청룡

동쪽을 관장하는 파란 용



주작

남쪽을 관장하는 상상 속의 붉은 새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박본 작가의 작품들 속에서 세상은 황당하리만치 기발한 방식으로 거꾸로 뒤집힌다. 2017년 베를린연극제에서 희곡부문을 수상한 <으르렁대는 은하수>Das Knurren der Milchstraße>의 경우, 김정은이나 도널드 트럼프 같은 캐릭터들이 따듯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박본은 현재 해당 작품을 초연무대에 올리기 위해 빌레펠트 극장에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금 막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너바나의 <리튬>Lithium> 공연을 마친 북한의 지도자. 그 '정신 나간 김정은'이 관중들을 향해 그간 자신이 행해온 시도들이 모두 다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을 선포한다. 최근 김정은은 “남북한을 통일하고 싶다. 괜찮은 생각 아닌가?”라고 밝힌 적이 있다. 당연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정신 나간 김정은'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박본 작가의 작품 <으르렁대는 은하수>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하나이다. 박본은 1987년 독일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한국인이다. 하지만 청년 극작가 박본이 '정신 차린 도널드 트럼프', '똥똥한 하이드 클룸'과 더불어 굳이 북한의 폭군을 무대에 세운 것은 자신의 뿌리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 박본의 작품은 원래부터 늘 정해진 경계 없이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실험이었다. 그 속에서 작가는 황당한 유토피아와 기괴한 디스토피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오해의 골을 첨예하게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작가 자신의 고유한 유머도 잊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근거 없는 조롱 모드로 빠져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박본은 현재 SNS 상에서 마구 유포되고 있는 김정은, 트럼프 혹은 독일 극우 정치가들을 조롱하는 동영상들이 “점점 더 심각한 상호불신 상태로 빠져들게 만드는 계기”일 뿐이라 말한다. 박본이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인식의 도구로 활용하는 장치는 양화>positive print<가 아닌 음화>negative print<이다. 그 음화 속 세계는 양화 속 세계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지만, 세상을 또렷이 인식시키기에는 충분하다.

뒤집힌 세상

문화저널리스트
파트릭 빌더만

2017년 7월 작성

박본의 배움터는 베를린 민중극장

출생 후 4년 간 부산의 할머니 댁에서 살았던 박본은 어릴 때부터 연극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독문학과 연극학을 전공한 뒤 한때 서울에서 한 연극그룹과 독일 연극들을 공연한 어머니 덕분이었다. 박본의 어머니는 지금은 한국의 한 전기 관련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박본을 본격적인 연극광으로 만든 발판은 베를린 민중극장이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공연되는 연극들을 관람하기만 했다. 이후 민중극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클럽 P14에 가입하면서 때로는 배우로, 때로는 연출로 활동했다. <심바>SIMBA>도 그 당시 탄생한 작품들 중 하나이다. 주인공 심바는 덴마크의 왕자로,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적절히 뒤섞인 '하이브리드 캐릭터'이다. 심바의 줄거리 역시 그 두 작품들과 어느 정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박본은 프랑크 카스토르프>Frank Castorf<나 베르너 슈뢰터>Werner Schroeter< 같은 연출가들 밑에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고, 르네 폴레쉬>René Pollesch<의 <넌 내 프라이팬을 망쳤어, 이 테러 계란프라이야!>Du hast mir die Pfanne versaut, du Spiegelei des Terrors!>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2010년 박본은 베를린예술대학>UdK< 극작과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다지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 하면 떠오르는 엄격함이나 틀에 박힌 규율과는 대척되는 지점에 서 있었던 것이다. 2학년이 되던 해, 그의 첫 작품 <젊은 2D 슈퍼마리오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Super Mario in 2D>이 탄생했다. 슈퍼히어로를 주인공으로 한 해당 익살극의 구성은 원작 게임을 본뜬 것이었다. 해당 작품으로 박본은 같은 해인 2011년 하이델베르크연극제 희곡부문을 수상했다. 아쉽게도 해당 작품은 아직 한 번도 공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본은 공연계의 생리와 기대치를 전혀 모르던 시절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고 담담하게 말한다.



<삼십억 자매> 중에서 © Thomas Aulin

비에 빠진 거북이와 때 이른 죽음

이후 발표된 작품들은 다행히 서랍 속에만 처박혀 있지 않았다.

새로운 작품이 발표될 때마다 연극이라는 장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하고도 감성적인 연출력이 바탕이 된 박본의 탄탄한 실력이 점점 더 진가를 발휘했다.

‘토막극’이라는 장르로 분류되고 있는 작품 <슬픔과 멜랑콜리>Traurigkeit & Melancholie oder der aller aller einsamste George aller Zeiten>에서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거북이가 “난 프랑스혁명 때 투쟁했고, 트로이아 목마도 만들었어. 난 이 세상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괴테, 아리스토텔레스, 티라노사우루스와 편지도 교환했어……”라며 독백으로 세계사를 읊는다.

그런가 하면 <군내 나는 관용>Toleranzig>은 ‘무한 독심’을 지닌 부모들 앞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저항이나 뒤흔들어도 소용없음을 논한다. 그 부모들은 심지어 자녀가 자민당FDP에 가입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플랑쿠후로토. 한스라는 이름의 중국인>Flankufuroto. Ein Chinese namens Hans>에서는 중국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서구인들은 땅속 하수구에서 숨어 살아간다.

이 희곡에서 박본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고정관념들을 통렬하고도 극단적으로 풍자한다.



어차피 잘난 체할 거 기왕이면 공격적으로!

박본은 작품에 늘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곤 한다. 베를린 ‘브로토파브릭’ 소극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완성된 텍스트를 통해 작가를 조명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다. <박본을 애도함>Wir trauern um Bonn Park>는 그때 탄생된 작품이다. 거기에서 박본은 자신의 죽음을 소재로 ‘한바탕 놀이’를 벌인다(“2012년, 너무도 이른 나이에 이미 그는 창밖으로 떨어졌다. 그의 몸 안에는 깨어진 달 조각들만 남아 있었다”). 현재 빌레펠트 극장에서 공연을 준비 중인 <으르렁대는 은하수>에도 ‘미래에서 온 분노한 박본, 11세 소녀의 몸에 갇힌 박본’이라는 캐릭터, 즉 작가 자신의 분신이 등장한다.

해당 캐릭터는 어느 비통한 시대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묘사한다(사실 내용상으로는 그다지 미래적이지는 않다). “만약 자기 자신과 마주치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어이, 잘 지내지?’라고 묻지 않는다. ‘어이, 흠, 모든 게 엉망이군’이라 말할 뿐이다.”

이러한 풍자적 자아도취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박본은 연극계에선 모두가 허영심에 들떠 있고, 자신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한다. 기왕 잘난 체할 거면 차라리 내놓고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 본질적 의도를 표현하기에 더 낫다고도 덧붙인다. 하지만 마술의 비유를 들며 자세한 설명은 회피한다.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버리면 마술의 재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다. 박본에게서는 현재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증오 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느껴진다.

그런 의미에서 박본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개척자라 부를 수 있을까? 박본은 원론적인 반문으로 이 질문을 반박한다. ‘개척자, 비전가, 이상주의자, 선인善人’ 같은 긍정적 독일어 단어들이 경멸적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의문스러우며, “그중 마지막 단어인 ‘선인’의 경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착하다’일까 ‘사람’일까?”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출처 및 저작권
주한독일문화원, 파트릭 빌더만



리서치

케이팝을 살살이 파헤쳐라

케이팝과 케이드라마가 작품의 가장 주된 소재였던 만큼 이에 대한 깊은 리서치가 연습 과정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첫 연습으로부터 약 3주간, 매일 워크숍 형태로 리서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와 스태프가 모두 모여, 그 날의 주제에 맞추어 각자가 나누고 싶은 요소를 소개하고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눈 소재와 감상들이 대본에도 고스란히 녹아나게 되었습니다.



콘셉트

전사^{前史}가 있는 아이들, 세계관이란 이런 것이다

‘완벽함’을 지향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살한 ‘아이들’이라는 기본 설정을 바탕으로 리서치하던 중, 한국 연예산업의 근원에 고전부터 이어져 온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 박본 작·연출가는, 우리 작품에 한국 설화와 사신^{四神}의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서천서역, 이무기와 관련된 설화를 가져와 구체화했으며, 4명의 그룹 멤버가 사신과 이무기의 캐릭터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색이 두드러지도록 만들고 각 사신의 색에도 특정한 이미지를 넣어 - 단순한 파랑이 아닌 ‘실망’ 가득 블루 청룡’과 같은 - 콘셉트를 구체화했습니다.

슈퍼 한^한의 데뷔일지

전무후무한 연옥의 아이돌 그룹, ‘슈퍼 한’의 매니저, 스탠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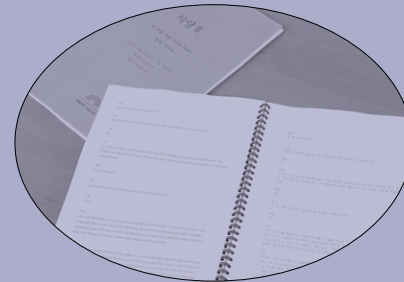
이루지 못한 아이돌의 꿈을 안고 지구의 내핵까지 다다른 ‘슈퍼 한’의 멤버들. 이들의 치열했던 연습현장을, ‘슈퍼 한’의 데뷔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음악&안무

최고가 되기 위한 연습은 계속된다

아이돌 그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춤과 노래. ‘슈퍼 한’의 멤버들에게 가장 잘 맞는 곡을 만들기 위해 멤버 각각의 음역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팝의 형식에 기초한, 멤버들의 음역대에 맞는 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최고의 아이돌’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완벽한 군무를 위해 ‘슈퍼 한’ 멤버들은 기본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습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데뷔 날만을 기다리며 연습, 연습, 다시 연습! 라이브에 강한 그룹, ‘슈퍼 한’이 되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 연습했습니다.



대본

‘슈퍼 한’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리서치와 콘셉트 설정, 음악 작업이 모두 끝난 후, 드디어 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공유한 것들, 바로 ‘슈퍼 한’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슈퍼 한’의 제작진 및 스태프진이 글로벌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본 또한 독문과 국문을 병기했습니다. 글로벌한 대본을 바탕으로 멤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설정하고 연습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아이돌로서의 ‘슈퍼 한’은 탄탄한 밑그림 위에 완성도를 높여갔습니다.



내핵의 아이들, 케이팝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다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데뷔 일이 코앞! 팬분들에게 보여줄 멋진 자켓사진도 찍었습니다. 언제나 연습은 실재와 같이! 쇼케이스가 열릴 무대와 똑같이 만들어진 연습용 세트를 이용해 동선을 잡으며 무대와 의상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도 함께 진행됩니다. ‘슈퍼 한’을 위해 전 스태프가 모여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무대 위의 ‘슈퍼 한’은 얼마나 멋진가요!

그들의 화려한 데뷔 무대는 극장에서 확인해주세요! ©



스태프 프로필	20
<div> <div>작·연출</div> <div>박본</div> <div>Park Bonn</div> </div>	프로필 2페이지
<div> <div>번역·드라마투르기·연출통역</div> <div>이단비</div> </div>	<div> <div>연극 [번역] <럼스> <집에 사는 몬스터> <아버지와 아들> 외</div> <div>[드라마투르기] <휴먼푸가> <집에 사는 몬스터> <킬롤로지> <비명자들2></div> <div><IS 김군, 그리고 시선> <벽-이방인 이피게니에> <불량청년> 외</div> </div>
<div> <div>미술</div> <div>누스바우머 줄리아</div> <div>Nussbaumer Julia</div> </div>	프로필 8페이지
<div> <div>음악</div> <div>뢰슬러 벤</div> <div>Roessler Ben</div> </div>	프로필 9페이지
<div> <div>안무</div> <div>이경진</div> </div>	<div> <div>무용극 [조안무] <디어 루나></div> <div>무용 [출연] <Noostopia> <Opus Fünfundsechzig> <Woher wir kommen> <NEW SITES></div> <div><Der Feuervogel> <Romeo+Julia> <Music for a While></div> <div><Der Tod und das Mädchen> <Die Brautschminkerin> 외</div> </div>
<div> <div>음향</div> <div>김병수</div> </div>	<div> <div>연극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나는 살인자입니다></div> <div>국악뮤지컬 <제비씨의 크리스마스> <닭들의 꿈, 날다> 외</div> </div>
<div> <div>조연출</div> <div>조예은</div> </div>	<div> <div>연극 [연출] <트렁크씨어터프로젝트 - 메리, 크리스, 마쓰> <수궁가가 조아라: 자라의 귀환> <빼꼼빼꼼> 외</div> <div>[조연출] <햄릿> <마우스피스> <썬샤인의 전사들> <그 개> <2센치 낮은 계단></div> <div><로퐁찬 유랑극장>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외</div> </div>
<div> <div>조명보</div> <div>손민영</div> </div>	연극 <레테, 망각의 강> <팔녀투강> <와이바이> <레미제라블> <항수> <마라사드> <환향>
<div> <div>의상보</div> <div>신은혜</div> </div>	<div> <div>연극 <인형의 집> <2019 연출의 판 - 메이데이> <시라노 콤플렉스> <밀바닥에서> <운빨로맨스> 외</div> <div>기타 에버랜드 퍼레이드 <크리스마스 판타지> <카니발 판타지> 외</div> </div>
<div> <div>분장보</div> <div>남혜연</div> </div>	<div> <div>연극 [분장] <고야> <극단 애인의 1인무대 > <3인 3색 이야기 시즌3></div> <div>[소품] <X의 비극> <온, 오프라인 발전기> <3인 3색 이야기 시즌3></div> </div>
<div> <div>음악보</div> <div>이건희</div> </div>	영화 [음악] <온택트> <육지것들> <그대 어이గ리>
<div> <div>기술통역</div> <div>서사론</div> </div>	<div> <div>연극 <오렌지 북극곰> 외</div> <div>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한공연> <보디가드> <라이온 킹 내한공연> <마틸다> <빌리 엘리어트> 외</div> </div>
<div> <div>연습통역</div> <div>이은비</div> </div>	<div> <div>연극 [작·연출] <돼지떼> <죽음의 손병호 게임> 외</div> <div>뮤지컬 [연출] <루 살로메> 외</div> </div>

21	만드는 사람들
<div> <div>출연</div> <div>관점 없는 블랙 현무 강현우</div> <div>실망 가득 블루 청룡 박소연</div> <div>불안 장애 레드 주작 이유진</div> <div>이무기짱 김예림</div> </div>	<div> <div>조명팀 김병희 김경호 양상모 김기훈 윤재이</div> <div>조승희 김도형</div> <div>음향팀 박상준</div> <div>영상팀 정경은</div> </div>
<div> <div>스태프</div> <div>작·연출 박본 Park Bonn</div> </div>	<div> <div>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div> <div>홍보 이정현 최윤영</div> <div>마케팅 변정원</div> <div>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div> <div>후원 이승이</div> <div>청년인턴 노소연</div> <div>극단적 낭만인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div> <div>박예지 유연지 이지민</div> </div>
<div> <div>번역·드라마투르기·연출통역 이단비</div> <div>미술 누스바우머 줄리아 Nussbaumer Julia</div> <div>음악 뢰슬러 벤 Roessler Ben</div> <div>안무 이경진</div> <div>음향 김병수</div> </div>	<div> <div>홍보사진 만나 사진작업실 대표 김신중</div> <div>연습·공연사진 이강물</div> <div>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들어 대표 황경환</div> <div>홍보영상 602STUDIO 대표 김명준</div> <div>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 대표 박신우</div> <div>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대표 김은총</div> <div>옥외광고 영기획 대표 서성원</div> <div>홍보물 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div> </div>
<div> <div>조연출 조예은</div> <div>조명보 손민영</div> <div>의상보 신은혜</div> <div>분장보 남혜연</div> <div>음악보 이건희</div> <div>안무보 오진민</div> <div>기술통역 서사론</div> <div>연습통역 이은비</div> <div>판소리자문 송현아 이해원</div> </div>	<div> <div>티켓 김효진</div> <div>매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div> <div>하우스매니저 이기쁨</div> <div>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민경 임지은 송솔 황지수</div> <div>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주는 김나연</div> <div>최희라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div> </div>
<div> <div>기술감독 김무석</div> <div>무대감독 나혜민</div> <div>무대제작감독 경은주</div> <div>조명감독 오퍼레이터 류선영</div> <div>음향감독 오퍼레이터 음창인</div> <div>의상감독 박지수</div> <div>무대진행 유성엽 김영주</div> <div>의상진행 송인호</div> <div>음향RF 오세나</div> <div>자막제작 정혜지</div> </div>	<div> <div>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대표 김은총</div> <div>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대표 신동복</div> </div>
<div> <div>무대제작 쇼먼트 대표 김나리</div> <div>의상제작 인유어도어 대표 신은혜</div> <div>소품제작 예술공장 대표 정윤정</div> <div>조명장비임차 파이어라이트 대표 도진기</div> <div>음향장비임차 뮤즈 대표 박경민</div> <div>영상장비임차 두잉미디어 대표 강상복</div> </div>	<div> <div>기획·제작 총괄 김옥경</div> <div>프로듀서 정채영</div> <div>프로듀서보 윤정민</div> <div>제작진행 박소영</div> </div>
	<div> <div>후원 주한독일문화원</div> </div>
	<div> <div>제작 (재)국립극단</div> <div>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div> <div>사무국장 오현실</div> </div>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헌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옥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이지연 아카이브
 홍혜림 청년인턴
 박설아 연수단원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김철순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프로듀서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운영 이정현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송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최은수 연구개발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훈 이원준 이유진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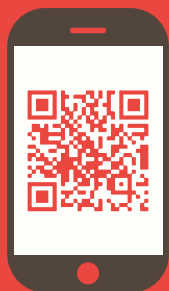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 가입기간 3년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rk.or.kr

고객센터
1644-2003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그냥 그런 거야. 그게 법칙이야. 하늘은 파랗고 사람들은 슬퍼.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